

가말떡 정재

Mother's kitchen

글. 조정만 _ Cho, Jeongman · KIRA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수필가

오늘 주방 식탁에서 알맞게 식어진 송농 한 사발을 마시고 나니 예전 고향집 부엌 앞에서 들려오던 소프라노 톤 동네 아줌마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가말떡 정재는 언제 봐도 윤이 반짝 반짝 나는 구만요이. 저 소드방(가마솥 뚜껑) 반들거렁 것 좀 보소. 하따아, 먼지 한 개도 없이…….” 앞집 혜경이 엄마의 부러움 가득 찬 음성이었다. 여느 집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도 부지런하셨고 알뜰하셨지만, 사춘기 시절 나는 그 점을 잘 몰랐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도, 친척 집에 놀러가도 다들 깨끗이 정리해 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집 아줌마의 이 말에 나는 우리 집 부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눈에 담아두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 집의 구조는 호남지방 전형적인 남방식 주택으로서 안방과 작은방이 있고 중간에 대청마루가 있으며 부엌은 안방 옆에 위치하여 취사용 아궁이가 추운 날씨에 불을 때는 난방용 아궁이를 겸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이면 눈 비비고 일어나 취사용 불 때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태워서 밥을 짓는 일은 새벽 아침 한 편의 불꽃 향연과 함께 시작한다. 먼저 신문지를 구겨서 짝 성냥 한 개비를 적갈색 면에 일발에 확 내리 그러면, 성냥은 노란색 껍적을 남김과 동시에 빨간 화약으로 감싸 권 성냥 머리에 불이 붙게 되고, 동시에 유황 타는 냄새가 코끝을 진동한다. 그와 함께 노랑과 선홍빛 나는 불꽃은 신문지를 태우고 쓰시개 용 가리 나무에 불이 옮겨 붙는다. 그리고 미리 세워 놓은 삭정이와 장작에 불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윽고 부채 혹은 풍무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아궁이 속에는 불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바삭 마른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불꽃은 마치 맹렬히 솟아오르는 해돋이의 태양처럼 떠올라 가마솥 밑을 수차례 공격하고, 아울러 뱀의 혀 놀림처럼 불이 춤추고 나면 이내 쌀과 물이 끓어 가마솥 뚜껑 사이로 김이 나기 시작했다. 수분 간 끓이기를 하고 나면 화려했던 불을 이제 부지깽이를 이용하여 아직 타지 않은 장작의 불꽃을



떼어 내어 죽이면 불은 떨어진 솥으로 인해 온도가 약하게 조절되고, 그 때 어머니는 이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친정이 산동면 부절리였다. 솔뚜껑 부(釜)에 마디 절(節). 어머니의 고향이 부절이라서 '부절댁'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우리 동네에선 '가마 마을'의 줄임말 '가말댁'이 의성 변음하여 '가말떡'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택호 하나에도 사연이 담겨져 있었고 이력이 담겨져 있는 일인 것이다. 부엌에서 조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요리는 단순히 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식재료가 어우러지는 창조행위라는 것을 느꼈다. 쌀과 보리를 적당히 섞은 밥에 김치와 된장국 또는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혹은 생선조림, 간 고등어구이나 갈치구이 등이 번갈아서 나오는 식단구성. 생일에는 미역국, 설날에는 닭고기를 찢어서 엮고 계란 고명을 올린 떡국, 추석에는 토란국 등 그야말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부엌. 우리는 이 집밥을 맛있게 먹으며 힘을 내게 되고 각자 할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주 어릴 적 어느 날, 고향 강물이 넘쳐서 부엌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집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 물 잠긴 부엌 앞에서 영영 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울지 말고 얼릉 바가지로 물 퍼!' 하셨다. 이 한마디에 나는 놀라 곧장 눈물을 훔치고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물을 퍼냈다. 어린 손으로 어머니와 함께 물을 퍼내니 부엌은 금세 바닥이 드러났고, 어머니는 물기를 걸레로 훔치고 이윽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다. 그러니까 이내 부엌은 생기가 돌았고 밖에 역수로 퍼붓던 비도 그쳤던 적이 있었다. 어릴 적 시야로는 당연히 겁이 났으므로 울기 밖에 할 일이 없던 나는 부엌에서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다. 위기가 왔다고 냅 놓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차분히 다음 행동을 하는 지혜를 말이다. 오늘도 나는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집밥을 먹으며 요리의 창조의 샘, 지혜의 샘인 어머니의 부엌을 추억해 보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